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48009-200000012265

아동·가정복지학 석사학위논문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renting Education Adapting Transactional Analysis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Infants' Early Social Communication Skills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아동·가정복지전공
홍 민 형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에 미치는 영향

지 도 교 수 박 혜 원

이 논문을 아동·가정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아동·가정복지전공
홍 민 형

홍민형의 아동·가정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박혜원 인

심사위원 김영주 인

심사위원 이형민 인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18년 02월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영유아 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았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여 지역 상담소를 내방한 20~30개월 영유아를 둔 어머니 30명 중 무선표집하여 배정하였으며, 실험집단 어머니 15명에게는 총 10회기의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어머니 집단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경숙 외(2008)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척도 '한국판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축약형(K-PSI)'을 사용하였다. 또한 영유아 집단의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은 Mundy, Degaro, Block, Venezia, Horgan과 Seibert(2003)가 개발한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ESCS;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와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정을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정을 위해 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검증을 실시하였다.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모의 양육 스트레스의 사전·사후 검사 차이의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한 결과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에서는 총 스트레스 점수 차이가 평균 -44.6(SD=23.06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에서는 점수 차이가 평균 -1.000(SD=2.138)이었고 사전·사후 검사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7.108, p<.001). 총점과 마찬가지로 검사 하위영역 모두에서 두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차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영유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ESCS(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사전·사후검사 점수 차이의 집단 간 차이에서 하위영역 중 행동적 요청 시도(t=4.493, p<.01), 행동적 요청에 대한 반응(t=3.550, p<.01),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t=2.633,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공동주의 시도,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 사회적 상호작용 시도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집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소 정도와 실험집단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하위영역 중 행동적 요청 시도, 행동적 요청에 대한 반응, 사회적 상호작용)의 점수 증가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므로, 본 프로그램은 모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와 영유아의 초기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교류분석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부모와의 의사소통 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및 부모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감윤희, 2006; 손수향, 2005; 정은정, 2002) 외에도, MBTI와 PET의 내용을 재구성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며(김종훈, 2006),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P)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김미례 등, 2008) 등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가 자신과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여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애착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또한 높아졌다는 선행연구에서는 애착이 높은 영아가 공동주의의 시도와 반응, 요구행동의 시도와 반응,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반응 또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영, 김희진, 2014).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및 양육태도의 변화를 꾀할 수 있으며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보았을 때 이 과정에서 자녀와의 애착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위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부모역할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이 느리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으며(이유미, 이정은, 2014) 부모의 반응성은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며(Brady, Marquis, Fleming, & McLean 2004; Girolametto & Weitzman, 2002; Kim & Mahoney, 2004) 양육자가 상호작용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이끄는 대로 따라주면 아동에게 의사소통을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 빈도 및 반응하기, 의사소통 차례수에서의 증가의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진연선, 성인경, 이현숙, 배소영, 2014).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심리적 생활자세의 변화(김해연, 2002), 양육태도 및 승자적 삶의 태도 변화(하경희, 2003), 자녀의 양육태도(윤옥진, 2007), 부모의 자기효능감(이영호, 박성애, 2008)의 변화 등에 관한 연구나 그 대상이 특정한 집단(장애아 부모, 군인가족 등)이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아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영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소수에 불과하다.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교류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본 선행연구(김성자, 2007; 배영미, 2009; 진순옥, 2009)에서도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및 태도, 유아의 자아개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와 영유아 자녀의 초기 사회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본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수행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목적에 맞는 대상자의 선정이 어려워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대상자 연령이 8~30개월로 한정되어 있고, 대상자를 모집·선정하기 위한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장소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지 못하였다.

둘째, 연구기간이 짧다는 제한점이다. 연구대상에는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고 그들은 발달선상에 있으므로 연구기간이 길었다면 통제집단의 영유아에게서도 사후 검사 결과 점수의 증가가 나타났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사전·사후 검사 간의 시간차를 많이 둘 수 있었다면 프로그램 처치를 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점수 향상 정도와 실험집단의 그것을 비교하여 프로그램 처치 효과와 발달을 통한 점수 차이를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약 두 달 간의 연구기간 동안 통제집단의 아동에게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점수의 향상이 있었다. 이것은 어린 연령의 아동이기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이며 실험집단에서의 점수 증가의 전부가 프로그램의 진정한 효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셋째,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ESCS;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이 척도의 개발 시 이미 입증되었으나, 아직까지 이 척도의 전체점수를 이용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한국판으로 표준화된 것이 아니기에 검사 결과 점수의 비교는 가능하나 점수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

넷째, 사전·사후 양육 스트레스 검사가 약 45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져, 양육 스트레스 점수의 감소가 부모교육프로그램을 막 종료한 후 일시적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그 설계와 과정에서의 제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는 바이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연구대상자를 충분히 모집하고 둘째, 대상자의 자연적 발달을 통한 점수의 향상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통한 향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기간을 충분히 길게 설정하며 셋째, 연구대상 외 다른 영유아들에게도 검사를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결과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넷째, 프로그램 종료 후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사후 검사를

재실시하여, 일시적 프로그램의 진정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5
3. 용어의 정의 ····· 6
1) 교류분석 ····· 6
2) 양육스트레스 ····· 6
3)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 6

Ⅱ. 이론적 배경 ····· 7
1.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 ····· 7
2. 양육스트레스 ····· 9
3.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 10

Ⅲ. 연구방법 ····· 18
1. 연구대상 ····· 18
2. 측정도구 ····· 19
3. 연구절차 ····· 22
4. 자료분석 ····· 23

Ⅳ. 연구결과 ····· 25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 25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의 정규성 검정 ····· 26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 26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결과의 기술통계분석 ····· 27
2.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30
3.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발달에 미치는 영향 ····· 31

1)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공동주의 시도에 미치는 영향 ····· 31
2)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 ····· 31
3)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행동적 요청 시도에 미치는 영향 ····· 32
4)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행동적 요청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 ····· 32
5)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사회적 상호작용 시도에 미치는 영향 ····· 33
6)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 ····· 33

Ⅴ. 논의 및 결론 ····· 35

참고문헌 ····· 39

부록 ····· 44

Abstract ····· 63

표 목차

<표 1>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 19
<표 2> PSI 축약형 검사 - 재검사 신뢰도 ····· 20
<표 3> ESCS(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의 과제와 해당영역 ····· 20
<표 4> 연구절차 ····· 23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K-PSI) 점수의 정규성 검정 ····· 25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ESCS;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 검사 수행의 정규성 검정 ····· 25
<표 7> 실험집단(모)과 통제집단(모)의 동질성 검정 ····· 25
<표 8> 실험집단(영유아)과 통제집단(영유아)의 동질성 검정 ····· 26
<표 9>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K-PSI) 각 척도별 기술통계량 ····· 27
<표 10> 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K-PSI) 연령별 각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28
<표 1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ESCS;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 점수의 기술통계량 ····· 28
<표 12> 24~30개월 영아집단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ESCS;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 29
<표 1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양육 스트레스 점수 차이의 집단 간 차이 검증 ····· 30
<표 1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공동주의 시도 점수의 집단 간 차이 검증 ····· 31
<표 1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 점수의 집단 간 차이 검증 ····· 31
<표 1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행동적 요청 시도 점수의 집단 간 차이 검증 ····· 32
<표 1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행동적 요청에 대한 반응 점수의 집단 간 차이 검증 ····· 32
<표 1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사회적 상호작용 시도 점수의 집단 간 차이 검증 ····· 33
<표 19>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사회적 상호작용 시도에 대한 반응 점수의 집단 간 차이 검증 ····· 33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 가정의 아기 출생은 가족들에게 기쁨과 큰 의미를 제공한다.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부모의 역할 뿐 아니라 가족의 적응 및 건강한 가족의 기능 유지를 위한 부모 역할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부모들이 아동의 발달과정과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양육을 위한 전반적 지식, 양육기술, 보다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한 자질과 소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것을 체계화한 것이 부모교육과정이다(이재연, 김경희, 1993). 부모교육은 아동과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고, 부모에게 자녀를 키우며 겪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고,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효과적인 교사로서의 역할을 익히도록 하며, 이로 인해 교육의 긍정적인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rickman & Weatherford, 1986). 부모는 부모교육 또는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영아기의 비언어적인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이해하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1990년대부터 개발되어온 부모교육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모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성격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변화 주체로서의 부모를 중심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류분석 이론에서는 상호관계를 맺는 것의 가장 기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라고 하며, 자녀양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타인과 상호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방식을 이해하여 인간관계를 자각하고, 그를 통한 통찰을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Clarke, 2004).

교류분석 이론은 인간관계를 바람직하게 형성하고 스스로의 내면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호관계 이론이다. 교류분석 이론을 적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인본주의적 가치체계 위에 행동주의적 명료성과 정신분석적 통찰의 깊이를 더한 개인내적 및 대인 관계적 심리학인 동시에 심리치료 이론이며, 정신내적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성격적 특징을 발견하고 이를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제석봉, 2004).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변화시킴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건강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더욱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모든 시기가 똑같이 중요하나 그중에서도, 영유아기는 신체적 발달뿐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인 발달의 초석을 다지는 인생 초기의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영유아는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적 경험을 제공받으며 성장, 발달하게 되며 이것은 이후 영유아의 삶에 지속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유아기는 또한 앞으로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될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는 시기로, 언어이전 단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은 다른 영역의 발달보다도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행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성미영, 2003;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Girolametto et al, 2000; Hart & Risley, 1992, 1995; Warren, 2000).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사소통 도구(울음, 웃음, 발성) 등을 가지고 태어난다. 영아는 울음을 통해 자신의 상태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영아는 머리나 손을 움직여서 자기의 의도를 표현하거나 손가락이나 팔로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등의 행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는 어떤 사물을 매개로 상대방과 간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영아는 생후 1년을 전후하여 대상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대신에 목적하는 장소나 사물을 가리키는 동작이 나타난다. 이러한 손가락 가리키기 행위는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대상을 개입시키고, 그러한 관계에서 자신의 의도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 영아는 이러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을 자신이 보고 있는 세계나 생각하고 있는 세계로 끌어들이고, 또 특정한 사물을 가리켜 상대방과 그것을 공유하려는 것이다(김나영, 이경열, 정욱호, 홍계옥. 2005) Hart와 Risley(1999)에 따르면 유아들은 단어를 발화하기 훨씬 전에 부모의 관심 끌기, 관심 유지하기, 교대로 하기, 상호작용 지속하기 등과 같은 필수적인 기술을 배운다고 보고했다. 의사소통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고, 상호작용의 결과로 그 사람이 주는 메시지를 해석하고자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누군가의 주의 집중을 얻고자 하거나, 어떤 사물을 얻고자 하고,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알고자 하는 무엇을 말해주기를 원하는 등 다양한 기능 또는 목적을 가진다. 메시지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서를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이금진. 1989).

이러한 메시지들은 언어를 통해 전달될 수 있으나 수많은 의사소통들이 미소, 신

체위치의 변화, 몸동작, 심지어는 눈썹을 추켜세우는 등 다양한 비언어적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다. 사물을 지적함으로써 타인의 주의를 사물로 향하게 할 수 있고, 팔을 벌려 상대방에게 안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다양한 표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김화수, 2010). 이렇게 의사소통 상호작용은 신생아가 발성을 하거나 신체적 움직임을 보이면 부모가 이러한 신호들을 의미 있는 의사소통인 것처럼 반응하며 의사소통 교환이 일어난다(Murray & Trevarthen, 1986). 8~10개월의 유아는 의도적인 의사소통을 시작하는 언표내적 단계(illocutionary stage)에 진입하며 공동주의(joint attention)가 발달한다. 유아가 손을 의도적으로 뻗어 물체를 다루려고 할 때 부모가 여기에 반응하면 공동주의가 일어난다. 부모는 놀이에 참가하여 유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감을 흔들며 사물의 이름을 들려줄 수 있다. 이렇게 부모가 상호작용 시작에 반응해 주는 경우 아동의 언어발달은 더욱 촉진된다(Rollins, 2003).

상호작용은 둘 이상의 대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종의 행동을 의미하며 의사소통은 상호작용 중 타인과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Owens, 2005) 언어이전단계에서도 의사소통 의도를 주고받기 위해 몸짓, 음성, 표정, 응시하기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 영유아기 상호작용과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은 이후의 언어발달과의 강한 관련성이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제기되어왔으며(Desrochers, Morissette, Ricard, 1995) 단순히 언어발달을 예측하는 요인이 아닌 언어이후의 시기에도 독립적인 영역으로써 지속되며 사회적 기능을 가진 사회인지발달의 초기 형태로 해석되고 있다(Petitto, 1988). 초기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영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크게 '반응하기'와 '시도하기'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타인의 요구에 반응하는 능력과 영유아가 먼저 타인에게 요구를 시도하는 능력은 이후 사회적 교환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다. 초기의 반응성과 주도성은 영유아의 사회인지적 능력의 예견인이며 언어이전단계에 이미 개인차가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Csibra, Gergely, Biro, Koos, & Brockbank, 1999; Rochat & Morgan, 1998; Rochat, Morgan & Capenter, 1997; Woodward, 1998, 1999). 이러한 능력은 주양육자의 반응적이고 주도적인 상호작용의 방식에 의해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부모의 역할수행에 따라 자녀는 생애 가장 중요한 발달적 시기를 보내며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달을 촉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돌봄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녀를 키워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기기도 하지만 또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며 다양한 양육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주체인 양육자(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느끼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어머니가 영유아기 자녀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고 다양한 발달적 경험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짜증을 더 많이 내게 되며, 아동의 공격적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atterson, 1983). 또한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Crnic & Greenberg, 1990). 이렇게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녀가 일생동안 맺게 되는 모든 사회적 관계의 밑거름이 되는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리적으로는 부모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높이고 양육 효능감을 떨어뜨리며(서민정, 장은진, 정철호, 최상용, 2002), 부모의 양육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양육의 질을 낮출 수 있다(박응임, 1998; 신숙재, 199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양육스트레스의 감소)과 어머니의 변화에 따른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을 살펴보려고 한다.

2.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모 실험집단은 그렇지 않은 모 통제집단과 사전·사후 양육 스트레스 척도(K-PSI) 점수 차이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영유아 실험집단은 그렇지 않은 영유아 통제집단과 사전·사후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Early Communication Scale, ESCS) 점수 차이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1)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

교류분석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대인 관계 및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심리치료법이다. 교류분석에서는 기본 성격구조인 자아상태(ego-state)를 변화시켜 자신의 성장과 타인과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편안한 관계를 맺고 갈등이 발생되었을 때 win-win방식으로 건설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알게 한다(조병금, 2008)

2)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정적 감정을 촉발시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부모역할에서 느끼는 특정한 스트레스를 말한다. Belsky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하게 되며, 이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높게 지각하기 때문이다(Suchman & Luthar, 2001).

3)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Early Social Communication Skill)

Mundy, Hogan 및 Doehring(1996)은 함께 주의하기를 포함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Early Communication Scale, ESCS)를 고안, 2003년 다시 보완 수정되었다(Mundy, Delgado, & Hofan, 2003). 이 척도는 영아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달하며 의사소통 상대에게 원하는 것의 내용에 따라 행동의 기능을 구분하여, 의사소통 기술을 낮은 수준-높은 수준, 그것의 기능에 따라 다시 시도하기-반응하기로 구분하였다. 시도하기는 영아가 어떠한 메시지를 상호작용 대상에게 전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그 대상의 주의를 돌리는 행동으로 눈 맞춤(Eye contact), 상호작용 대상과 사물을 번갈아 보기(alternation), 대상이나 사물을 가리키기(pointing), 상호작용 대상에게 사물을 보여주기(showing)과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응하기란 상호작용 대상이 영아의 주의를 끌기 위한 시도를 할 때 이에 반응하는 행동을 말하며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따라가기(following point), 사물을 관습적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였을 때 적절히 반응하기(responds to invitation)와 같은 과제를 통해 평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을 적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1) 교류분석에 대한 기초이론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 TA)이론은 1950년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Eric Berne(1910～1970)에 의해서 개발되어 발전되고 있는 성격이론인 동시에 심리치료의 기법으로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도와주는데 활용되는 심리치료 및 교육에 관련된 체계적인 이론과 방법을 제공하여 준다(Stewart, Joines, 1987). 교류분석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교류패턴 또는 대화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을 제시하며 발전되어온 성격이론이다. 교류분석이론은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목적한다.

교류분석은 인간의 자율성 발휘와 인간의 심리 및 행동의 보다 빠른 변화 그리고 심리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발되었다. 성격이론으로서의 교류분석은 사람들의 심리적 구조를 설명해준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할 때, 서로 다른 세 가지 자아 상태 중 어느 한 가지 자아 상태에서 교류한다. 자아 상태라는 것은 특정한 사고, 느낌, 행동의 방식을 가리킨다. 각각의 자아 상태는 뇌의 특정 부위의 네트워크 및 활성화로부터 유래한다. 이러한 자아 상태 모델로부터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교류분석이다. Eric Bern(1964)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나며,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생의 초기에서부터 주변환경, 특히 부모나 부모 대리인들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자율성을 포기하게 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의 그가 맺은 인간관계에서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고착화시킨다. 몸에 밴 삶의 양식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실된 만남을 방해받고 있으며, 현실과 유리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내부에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이병래, 1996).

김성자(2006)에 따르면, 그러므로 Bern의 이론에 근거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자아 상태를 파악하고 그 자아 상태가 인간관계 장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며 각자의 자아 상태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여 그러한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금-현재(here and now)의 상황에서 자신을 통찰하며 이해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자발적이며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인간에 대한 교류분석의 긍정적인 철학이다. 또한 6세까지 부모와의 초기경험이 이 아이의 일생을 지배하며 성격발달과 자아개념 형성, 사회성 발달의 원동력이 되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 사람은 인정자극을 받으려는 욕구를 지니고 긍정저인 부모의 부정적 인정자극이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의 강화가 되어 계속적으로 비행행동을 하기도 한다. 즉 청소년의 비행행동은 인정자극을 받고자 하는 일종의 몸부림이라 볼 수 있다(김경미, 2013).

2) 교류분석의 기본원리

Berne의 교류분석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는 자아상태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자아상태란 한 개인의 사고와 감정 및 이와 관련된 일련의 행동양식을 총칭하는 것이다. 한 개인의 자아상태의 구조는 부모자아(parent ego: P), 아동자아(child ego: C), 성인자아(adult ego: A)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모자아는 아동이 성장과정을 통해 부모나 양육자의 생각이나 행동, 느낌을 내면화할 것이다. 아동자아는 어린 시절 실제로 느끼고 행동했던 것과 같은 감정이나 행동이 내면화된 것이다. 성인자아는 아동자아의 감정적 생활개념과 부모자아의 학습된 생활개념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하여 어떤 일을 혼자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교류분석에서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기본단위를 교류라고 하며, 자아상태의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간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자녀 간의 상호교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방식은 상보교류(상호 간의 의사소통에서 동일한 두 개 자아상태가 개입이 되어 자극과 반응이 평행을 이루는 형태), 교차교류(상호 간의 의사소통에서 기대하지 않은 자아 상태가 개입되어 자극과 반응이 교차를 이루는 형태), 이면교류(표면상의 교류와는 달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적 메시지의 교류)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볼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상호교류를 통해 자극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자극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기본 단위를 스트로크라고 하며, 인간은 스트로크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간을 구조화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인간은 부모로부터 어떠한 스트로크를 받았는가에 따라 특정한 인생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여러 다양한 인생각본을 형성하게 된다. 기본적 인생태도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스트로크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자신이나 타인 혹은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태도 및 이에 근거한 자기상 혹은 타인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생태도는 생의 초기에 형성되는 것으로 아동은 자신이 형성한 인생태도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Harris, 1991). 네 가지 인생태도는 다음과 같다.

- 자기부정-타인긍정: 자신은 무능하며(I'm not OK) 자신보다 타인이 유능하다(You're OK)는 인생태도
- 자기부정-타인부정: 자신도 가치 없는 존재(I'm not OK)이지만 타인도 무가치(You're not OK)하다는 인생태도
- 자기긍정-타인부정: 타인들은 옳지 않고(You're not OK),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I'm OK)는 인생태도
- 자기긍정-타인긍정: 자신도 옳고(I'm OK), 타인도 옳다(You're OK)는 인생태도(정옥분, 정순화, 2007).

3)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 및 양육환경은 특별히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있는 영유아기 아동들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출생 후부터 3세까지의 자녀를 다루는 방식이 한 개인의 전 생애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속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아동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좋은 시기가 영유아기라고 할 수 있다(이영, 조연순, 1993; White, 1971).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아동이 요구하는 반응에 민감하지 못할 수 있다. 더구나 기질이 까다롭거나 부모에 대해 반응을 적게 보이게 되는 경우 부모도 아이에 대한 반응이 소극적이 되고, 점차 상호작용의 빈도가 낮아지게 된다.

아동의 정서적·신체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아동들의 발달적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켜주기 위해서는 부모나 양육자의 역할이 전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므로 아동의 발달에 최적화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동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기술과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익히는 것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상호간 관계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감정표현 방식에 대한 자신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여 인간관계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프로그램 중 하나가 Bern의 교류분석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교류분석이론은 자기 자신의 충동적인 감정표현에 대한 근원을 이해하여 인간관계 개선에 효과적인 상담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교류분석이론은 대인관계의 의사소통의 분석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인간관계의 원리를 보다 명확하고 쉽게 제공하고 있다(이영호, 2010).

2.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모든 사람에게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큰 변화를 가져다주며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Abidin은 부모로써 일상에서 지각하는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이랑, 2003).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관해 부모가 인식하는 것과 자신의 성격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의 매순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다른 부모의 특성이나 양육환경 못지않게 자녀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양육스트레스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자신의 개인적 특성 및 주변의 지지환경, 생활사건, 자녀 기질 등에 의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와 자녀의 성격과 기질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는데 이는 어머니가 자녀의 요구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어렵게 하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혜성, 1994).

일반적으로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은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경험과 일상적 경험으로 구분되는데(이영숙, 2001), 어머니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심신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적응과 건강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한세영, 1995). 같은 맥락에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주요한 생활사건 경험보다 가족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더 잘 예언해 주고 있다(Crnic & Greenberg. 1990).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 스트레스가 강하고 빈번할수록 아동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Abidin, 1992).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행동 및 정서적 발달 외에도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명령적이고 부정적이고 적대적일 뿐 아니라(송주미, 1992) 자녀에게 짜증을 더 많이 내며 처벌적인 훈육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이는 다시 아동의 사회적 행동문제로 연결된다(Snyder, 1991). 또한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지며, 이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감이 높아질 수 있고,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아동의 기질 자체보다 정서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가 있다(한세영, 박성연, 1996).

3.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1) 의사소통 발달

의사소통 이론에서는 언어발달에 대해 두 가지 기본적인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아동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언어를 배운다. 의사소통과 언어 기술은 일차적으로 아동이 다른 사람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활동에 참여하면서 발전해 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상호작용 행동을 보여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상호작용 행동의 의미나 의도를 인식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둘째, 아동이 상위수준의 의사소통과 언어를 획득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며 아동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Bates et al, 1975; Bruner, 1974).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고, 말을 함으로써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전하며, 의사소통 발달과정을 보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체계에 그 근원이 있다. 어린 아이들의 의사소통은 일차적으로 부모나 다른 어른들과 상호작용하는 맥락에서부터 더욱 복잡한 대화로 발달해 간다. 예를 들어 먼저 아이들은 함께하는 활동 속에서 공동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다음으로 다른 사람이 발성하는 소리와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전달하려는 의미를 인식하게 되며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언어적으로 소리를 내거나 비언어적인 행동을 사용하고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단어와 보편적인 문법형태를 사용하도록 배우게 된다(김정미, 2013).

2) 의사소통 발달의 중심축 행동

중심축 행동이란 아동 초기 동안 발달적 기술과 능력을 배우는 데 사용하는 일련의 작은 행동이다. 중심축 행동은 대부분의 아동이 생의 처음 시기부터 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중심축 행동은 아동의 발달적 기능 수준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지만, 각 발달 수준에서 아동능력의 질적인 차이나 특징을 밝히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중심축 행동은 능동적 학습과정이며 발달 학습과정의 근본이며, 발달 기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동시 발생적 행동이다. 중심축 행동은 아동이 이미 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발달기술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부모가 반응적으로 상호작용함에 따라 중심축 행동을 자주 사용하도록 촉진할 수 있으며, 이것은 높은 수준의 발달 기능을 수행하는 데 기초가 되며, 넓은 영역에서 아동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중심축이 되는 행동들인 것이다(김정미, 2013).

중심축 행동은 인지, 언어, 사회·정서 기능의 세 가지 발달 영역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그중 공동 활동, 공동주의, 언어화, 의도적 의사소통, 대화 등이 언어영역에 속하는 중심축 행동들이다. 아동의 언어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른 및 그 밖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여러 중심축 행동을 배우고 사용해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 의사소통의 기회가 되는 공동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Bruner, 1982), 다른 사람과 관심을 공유하며(Mundy, Sigman & Kasari, 1990), 구어의 소리와 비슷한 범위의 복잡한 발성을 만들어 내고, 비언어적 행동, 발성 그리고 언어화를 통하여 뚜렷한 의도나 의미를 전달하고(Bruner, 1983), 단어와 언어형태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것(Bornstein et al., 1999) 등을 포함한다.

의사소통 이론에서는 언어발달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영향력은 아동이 부모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자발적으로 주고받는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은 아동이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심축 행동들에 대한 설명이다.

(1) 공동 활동(joint activity)

의사소통이론에서는 언어학습은 곧 사회적 활동이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공동 활동은 아동이 의사소통 상대자와 능동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아동이 상대자와 함께하는 상호작용은 협동적이고 주고받기 식의 특징이 있다.

아동은 다른 어른들과의 빈번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속에서 언어를 배워 나간다. 아동이 말을 시작하기 전 어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실제로 초기 단계의 대화를 하는 것이다. 아동은 어른과의 상호작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의도가 분명해지고 복잡해지며 이러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아동의 의도는 점차 복잡해지며 언어를 학습하게 되면서 언어를 통해 의도를 전달하게 되지만, 이미 그 이전에 표정 및 신체적 움직임을 사용하여왔다.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어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아동과 공동 활동을 하면서 아동이 상호적인 행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반응적인 어른은 아동과 근접한 거리를 유지하되 지나친 자극을 주거나 지시하거나 교육하려하지 않고 빈번한 눈맞춤을 하며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한다. 아동의 세계에 들어가서 아동의 차례를 기다려주고, 아동이 더 많이 의사소통하도록 적게 말하고 기회를 주는 등의 반응적인 행동은 공동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2) 공동주의(joint attention)

공동주의는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눈을 맞추는 빈도나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 표현하는 정도를 말한다. 아동은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해 몸짓, 표정, 눈짓 등을 사용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에도 언어적인 메시지 외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손짓, 표정 등을 동반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그것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외국어를 배울 때 외국어 대화 자체 외에도 다양한 맥락 단서들을 이용하면 상황 파악이 쉬운 것과 같다. 아동도 역시 언어를 습득할 때 부모의 몸짓, 응시, 미소, 목소리, 억양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의사소통 시 단어를 사용하기 앞서 먼저 공동주의가 나타나며 이는 세 단계에 걸쳐 발달한다. 그 중 첫 번째 단계는 주의 공유하기(shared attention)로 이는 아동이 부모와 함께 놀이하는 중 사물과 부모를 교대로 바라본 후 다시 장난감으로 시선을 옮기는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동은 사물을 가지고 어른과의 상호작용 중 어른이 아동의 눈을 응시할 때 어른의 초점을 인식한다. 두 번째 단계는 주의 따르기(following attention)로 어른의 행동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자신이 주의를 주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응시, 손짓, 몸짓 등의 단서를 사용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주의 이끌기(direction attention)로 이 단계에서 아동은 의도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통하여 외부 대상으로 어른의 주의를 이끈다.

생의 초기부터 어른은 아동과의 일상 속 상호작용 중 공동주의 기술을 사용하여 아동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Moraleds et al, 2000). 이렇게 아동은 어른과의 상호작용 중 눈을 맞추며 놀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사회적인 상호교환 안에서 놀이하는 역할을 학습하고, 또 어른의 행동이나 의도를 예측하는 기회를 얻는다.

(3) 의도적 의사소통(intentional communication)

의도적 의사소통이란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상대방이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의도적 의사소통은 자신의 감정이나 요구하는 내용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발생한다. 아동은 영아기부터 울음, 손 뻗기 등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잠차 자신의 요구, 감정 등을 빈번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의도적인 의사소통의 발달은 아동이 자신에 대해 보다 잘 인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신체적 움직임과 발성 등의 능력이 향상되고, 표상능력과 기억능력이 향상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는 동기가 생기면서 더욱 발전하게 된다. 반대로 말해, 아동이 자신의 의도를 다른 사람

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으면 의사소통을 하거나 단어를 배워서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

사람은 신생아 때부터 우는 것, 얼굴을 찡그리는 것 등의 여러 가지 움직임 및 발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아동에게 접근시키거나 관심을 갖게 한다. 처음에는 의도 없이 한 행동과 표정 등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 아동은 점차 이러한 행동들을 의사소통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동은 자신의 신체적, 사회적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 울음이나 칭얼거림, 옹알이 등을 하여 어른의 주의를 끌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고자 하는 목표지향적인 행동이나 의도는 단계를 따라 발전하게 되는데, 그 중 초기에 발달하는 기초적인 의사소통 행동의 발달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ate, 1974).

① 초보적 의사소통 행동 단계(primitive communication behavior)

초보적 의사소통 행동 단계는 0~3개월에 나타나는 반사적인 행동들로 울음, 미소, 눈맞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신생아들의 의사소통 행동들은 주로 생리적 욕구 및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하고자하는 의도 없이 나타나는 반사적 행동들이나 주변 어른들에게는 막강한 의사소통의 힘을 갖는다. 이 단계의 신생아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울음 등의 발성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주변 대상에게 관심을 보일 때에도 그 대상과 다른 사람을 통합하여 사고하지 못하므로, 원하는 사물을 주변 어른에게 요구하는 등의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인지적 발달로 설명하자면 아직 수단-목적 관계나 인과성 개념이 형성되지 못하여, 행동을 하는 사람과 목적이 되는 사물 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② 목표지향적인 의사소통 행동 단계(perlocitionary communicative behavior)

목표지향적인 의사소통 행동 단계는 4~7개월에 나타나며, 이 단계에 이른 유아는 자신이 소리를 내고, 표정을 달리 짓고, 몸짓을 하는 등의 행동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유아의 관심은 즉각적인 목표성취에 있으며 아직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사물을 어른에게 요구하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원하는 사물을 잡으려고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때 칭얼거리는 등의 표현만 할 뿐 어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즉 이 단계에서 유아는 자신의 즉각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신체를 사용하지만 사물과 사람의 인식이 확실히 분리되지 않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좀 더 변별적인 행동은 나

타나지 않는다. 이 시기의 전의도적(preintentional)이고 목표지향적인 유아의 의사소통 행동들은 다음과 같다.

- 사물을 응시하여 그것을 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어른이 응시하는 방향을 따라 응시한다.
- 자신이 산출할 수 있는 음소나 단어 목록을 사용하여 어른의 소리를 모방한다.
- 흥미가 있는 행동을 재현한다.
- 익숙한 사회적 게임에 반응한다(예: 짝짜꿍, 까꿍).
- 어른과 순서를 교환하며 교대로 대화하듯 소리를 낸다.

③ 도구적인 전환기 행동 단계(transitional/instrumental behavior)

목표지향적인 의사소통 단계에서 의도적인 의사소통 단계로 발달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유아는 점차 도구적 전화시기에 나타나는 행동의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유아는 자신이 미리 계획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분명하고 변별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유아는 어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되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행동을 하거나, 안아달라고 팔을 벌리고, 움직이다 멈춘 장난감을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 어른의 손을 이끌 수 있다. 유아는 어른이 장난감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이 장난감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장난감을 어른에게 갖다 주며 행동을 요구하는 등 정교하고 세련된 의도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유아는 어른과의 숱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보내는 신호와 얻어지는 결과 사이의 '수단-목적'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④ 언어이전의 의도적 의사소통 행동 단계(illocutionary communicative behaior)

이 단계는 11~14개월에 걸쳐 발달하며 유아는 의도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보여준다. 의도적인 의사소통은 자신의 어떠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미리 알고 그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 까지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시도해보는 것이다(Bates, 1976). 이 시기에 유아는 자신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예를 들어, 어른에게 과자를 얻기 위해 과자를 건드려 보기도 하고, 어른을 향해 미소지어보기도 하고, 소리를 내보기도 하며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한다. 이 시기에는 초기적 의사소통 행동보다 좀 더 발달된 행동 형태로서 뚜렷하게 의사를 내포하는 행동인 관습적인 몸짓을 자주 사용한다. 흥미로운 사물을 어른에게 보여주거

나 가리키기 등이 관습적인 몸짓에 속한다. 이러한 몸짓들은 다양한 억양의 발성을 이끌고 이것이 곧 기능적인 초어(proto-word)로 발전하게 된다.

아동들은 언어사용 이전에 이미 대화의 규칙이나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10~12개월 정도가 되면 아동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저어 긍정과 부정의 의사표현을 하는 등 이러한 의사소통 행동들은 언어를 통한 의도 표현의 전형이 된다(Bates, Camaioni, Volterra, 1975; Bruner, 1975, 1978). 아동의 발성과 행동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지니기에 언표내적인(illocutionary)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언어적 형식을 갖추지는 못하다가 나중에야 언어로 기호화된다. Halliday(1975)가 기능에 따라 10~18개월 정도에 나타나는 의사소통 행동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도구적 기능(instrumental function)

: '물건 요구하기'라고도 하며 자신이 원하는 사물이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의사소통 행동을 말한다.

- 조정적 기능(regulatory function)

: '행동요구하기' 혹은 '지시하기'라고도 하며 다른 사람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한 의사소통 행동을 말한다.

- 상호작용적 기능(interactional function)

: '주고받기' 기능이라고도 하며, 이것은 다른 사람과 교류 또는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의사소통 행위로서, 인사하기, 다른 사람과의 공동 주의, 공동 활동 등의 기능을 나타낸다.

- 개인적 기능(personal function)

: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는 의사소통 행위로서, 자신의 감정, 태도, 흥미 등을 표현한다.

- 발견적 기능(heuristic function)

: 환경을 탐구하고 정리하려는 의사소통 행동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왜'라고 질문하는 등의 의사를 내포하며 '정보요청하기'의 기능으로도 불린다.

- 가상적 기능(imaginative function)

: 가상적인 상황을 만드는 의사소통 행동이다(김영태, 2002).

3)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Early Social Communication skill)

Mundy, Hogan 및 Doehring(1996)이 고안 후 보완 수정한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Early Communication Scale, ESCS)에서는 아동의 의사소통 행동을 내용에 따라 공동주의, 행동적 요청, 사회적 의사소통으로 분류하고, 그것의 기능에 따라 다시

시도하기-반응하기로 구분하였다.

공동주의 시도하기는 아동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눈 맞춤을 하거나, 대상과 다른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거나, 대상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등의 행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행동의 수준으로 보면, 눈을 맞추거나 번갈아 보는 것은 낮은 수준, 지적하기와 보여주기는 높은 수준의 공동주의 시도하기에 해당한다.

공동주의에 반응하기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아동과 공유하고자 아동의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하였을 때, 아동이 이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사람이 응시하는 곳을 따라 보거나,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는 행동이 이에 속한다.

행동적 요청 시도하기는 아동이 원하는 사물을 얻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기 위해 성인의 행동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뚜껑이 닫혔을 때 열어달라고 요구하거나, 장난감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것에 속하는 전형적인 행동들이다. 행동수준 차원에서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은 눈 맞춤과 사물을 향해 손을 뻗기, 눈 맞춤을 동반한 손 뻗기 등이 있으며, 지적하기, 주기 등의 행동은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행동적 요청에 반응하기란 반대로 다른 사람이 아동에게 하는 행동적 요청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해주는 것을 말하며, 간단한 지시 따르기가 여기에 속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시도하기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순서대로 주고받는 행동을 시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 등을 통해 상호작용 대상과의 신체적, 순서를 교대로 하는 게임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반응하기에는 행동수준에 따라 낮은 수준, 높은 수준의 행동들이 있는데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행동으로는 눈 맞춤, 행동, 눈 맞춤을 동반한 행동 등이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에는 순서대로 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과 익숙한 사물(빗, 모자, 안경)들을 다른 사람의 신체 중 올바른 위치에 두는 것이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20~30개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15명과 그들의 영유아 자녀 15명으로 이루어진 실험집단과 동일한 조건의 통제집단을 합해 총 6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의 모집은 모광역시 소재의 상담소 재원아동의 어머니와 그들의 영유아 자녀(재원아동의 형제·자매), 재원아동 어머니의 지인들과 그들의 영유아 자녀로 구성되었다. 부모교육프로그램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전·사후검사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어머니와 자녀를 무선표집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배정하였다.

실험집단 모 연령은 30대가 14명(93.3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은 1명(6.67%), 20대에 해당하는 대상은 없었다. 모의 학력은 대졸이 9명(60%)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은 4명(26.67), 고졸은 2명(13.33%)이었고, 대학원 이상 졸은 없었다. 월 평균 가계소득에서는 400만원 이상이 7명(46.67%)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400만원 미만(6명, 40%), 200만원~300만원 미만(2명, 13.33%) 순으로 나타났으며, 100만원~200만원 미만은 없었다. 실험집단 영유아의 월령은 24개월~30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이 13명(86.67%), 24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이 2명(13.33%)이었고, 그중 남자는 11명(73.33%), 여자는 4명(26.67%)이었다. 자녀의 수는 1명이 8명(53.33%), 2명 이상은 7명(46.67%)이었다.

통제집단 모 연령에서도 30대가 11명(73.3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은 3명(20%), 20대는 1명(6.67%)이었다. 모의 학력은 대졸이 9명(60%)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은 4명(26.67), 고졸과 대학원 이상 졸은 각각 1명(6.67%)이었다. 월 평균 가계소득에서는 400만원 이상과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7명(46.67%)으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6명, 40%), 200만원~300만원 미만(1명, 6.67%), 100만원~200만원 미만은 없었다. 통제집단 영유아의 월령은 24개월~30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이 11명(73.33%), 24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이 4명(26.67%)이었고, 그중 남자는 11명(73.33%), 여자는 4명(26.67%)으로 실험집단과 성비율이 동일하였다. 자녀의 수는 1명이 7명(46.67%), 2명 이상은 8명(53.33%)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아동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실험집단(*N*=15)		통제집단(*N*=15)	
		N	(%)	*N*	(%)
모의 연령	20대	0	0	1	6.67
	30대	14	93.33	11	73.33
	40대 이상	1	6.67	3	20
모의 학력	고졸	2	13.33	1	6.67
	전문대졸	4	26.67	4	26.67
	대졸	9	60	9	60
	대학원졸 이상	0	0	1	6.67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200만원 미만	0	0	0	0
	200만원~300만원 미만	2	13.33	1	6.66
	300만원~400만원 미만	6	40	7	46.67
	400만원 이상	7	46.67	7	46.67
연구대상 자녀의 월령	24개월 이하	2	13.33	4	26.67
	24개월~30개월	13	86.67	11	73.33
연구대상 자녀의 성별	남	11	73.33	11	73.33
	여	4	26.67	4	26.67
총 자녀의 수	1명	8	53.33	7	46.67
	2명 이상	7	46.67	8	53.33

2. 측정도구

1) K-PSI; Korean Parenting Stress Index(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

이경숙 외(2008)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척도 '한국판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축약형'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았다. 이것은 자기보고식 검사이며 각 문항은 5점의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검사의 하위 영역은 총 세 가지로 부모의 고통,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 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자주, 강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본 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2> PSI 축약형 검사 - 재검사 신뢰도

척도	문항 수(문항번호)	검사 - 재검사[α]	Alpha[b]
총 스트레스	36(1~36)	.84	.91
부모의 고통(PD)	12(1~12)	.85	.87
역기능적 상호작용(P-CDI)	12(13~24)	.68	.80
까다로운 아동(DC)	12(25~36)	.78	.85

2) ESCS;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

영유아의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은 Mundy, Degaro, Block, Venezia, Horgan과 Seibert(2003)가 개발한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ESCS;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SCS는 8~30개월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평정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관찰을 통해 고안되었으며 반구조화된 관찰을 통해 크게 공동주의, 행동요구,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시도하기와 반응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하기는 아동이 자신의 경험을 검사자와 공유하기 위해 시도하는 행동들이며, 반응하기는 검사자가 아동과 사물, 사건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하는 시도에 아동이 반응을 보이는 행동들이다. 각 하위영역 별 과제와 실시방법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3> ESCS(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의 과제와 해당영역

해당영역	과제	실시방법	준비물
▸공동주의 시도하기 ▸행동적 요청 시도하기	장난감 과제 (Object Spectacle Task)	검사자가 아동에게 태엽장난감을 조작하여 움직이는 것을 보여준 후 그것을 아동 앞에 두고 아동의 행동을 관	태엽 장난감 풍선

▸행동적 요청에 반응하기		찰한다.	
▸공동주의 시도하기 ▸공동주의에 반응하기	그림책 과제 (Book Presentation Task)	검사자가 아동의 앞에 그림책을 놓고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후 아동의 행동을 관찰한다.	그림책
▸행동적 요청 시도하기 ▸행동적 요청에 반응하기	플라스틱 병 과제 (Plastic Jar Task)	장난감이 든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서 장난감을 꺼내 조작하는 것을 보여준 후, 다시 병에 담아 뚜껑을 닫았을 때 아동의 행동을 관찰한다.	플라스틱 병
▸사회적 상호작용 시도하기 ▸사회적 상호작용에 반응하기	순서대로 하기 (Turn-Taking Task)	아동에게 공이나 자동차를 굴려준 후 아동의 행도의 관찰한다.	공 자동차
▸사회적 상호작용 시도하기 ▸사회적 상호작용에 반응하기	사회적 상호작용 과제 (Social Interaction Task)	검사자가 노래를 부르고 난 후,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움직이며 아동을 간질이고 아동이 모방을 하거나 먼저 시도하는 지 관찰한다.	노래
▸공동주의에 반응하기	시선 따라가기 (Gaze Following Task)	검사자가 아동의 옆과 뒤쪽으로 붙은 포스터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아동을 불렀을 때 아동의 행동을 관찰한다.	포스터
▸사회적 상호작용에 반응하기	초대에 반응하기 (Response to Invitation)	관습적 방식으로 빗, 모자, 안경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 후, 아동에게 그것을 주고 아동의 행동을 관찰한다.	빗 모자 안경
▸행동적 요청에 반응하기	지시 따르기 (Follows	별도의 과제가 없으며,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검사자가	모든 놀잇감

	Commands)	아동에게 사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아동의 행동을 관찰한다.

3. 연구절차

1) 대상자 모집

연구대상의 모집은 모광역시 소재의 상담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부모교육프로그램과 사전·사후 검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머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모집기간은 15일이었으며 회수된 신청서를 무선표집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배정하였다.

2) 사전검사 실시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30명의 실험집단·통제집단 어머니들에게 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K-PSI)를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30명에게는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ESCS;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를 사용하여 사회적 의사소통기술을 측정하였다. 또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기 전, 어머니에게 연구의 목적과 부모교육프로그램과 사전검사 실시에 대한 안내와 결과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ESCS;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 검사는 약 3평의 검사실에서 실시되었고, 방해 자극을 없애기 위해 벽창을 제외한 삼면을 흰 천으로 가리도록 했다. 검사실 가운데에 검사를 진행할 테이블이 놓았고, 아동의 자리를 중심으로 좌, 우, 후측 벽에 포스터를 붙였다. 어머니가 아동을 안고 착석하며, 책상을 가운데 두고 검사자는 마주 보고 앉아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개인차가 있었으나 보통 20분 내외였다.

3) 프로그램 실시

15명의 실험집단 어머니를 대상으로 2017년 8월 2일~9월 6일, 주 1~2회에 걸쳐

총 10회기의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은 주로 오전 10시~12시 사이에 진행되었고 회당 60분가량 소요되었다.

4) 사후 검사 실시

본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2주 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사전검사와 동일한 측정도구와 방법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표 4> 연구절차

연구대상 모집		연구대상 선정/ 안내		사전검사
모광역시 중구 소재의 상담소에 연구대상 모집 공지 :연구목적, 연구대상, 참여 신청 방법 및 연구장소, 프로그램 안내 등	▶	신청자 중 실험집단·통제집단을 무선할당으로 배정한 후 개별 고지 (실험집단 15명/통제집단 동일)	▶	연구 참여 전 안내 모든 대상자에게 사전검사(한국판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 K-PSI, 초기사회적의사소통척도; ESCS) 실시

프로그램 실시		사후검사
실험집단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주 1~2회, 총 10회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 실시	▶	사전과 동일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와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정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정을 위해

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검증을 실시하였다.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 내 사전·사후 수행 및 점수의 차이와 집단 간 검사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집단 내 사전·사후검사 수행 및 점수의 차이와 집단 간 검사 차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Ⅳ. 연구결과

1. 주요한 변인들의 기술통계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 및 수행에서의 정규성 검정

본 연구는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전, 두 집단의 사전 검사 결과에 대해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 표 6과 같이 두 집단 모두에게서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으므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K-PSI) 점수의 정규성 검정

구분		N	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통계량	p	통계량	p
총 스트레스	실험집단	15	.114	.200	.960	.686
	통제집단	15	.149	.200	.930	.269
부모의 고통	실험집단	15	.144	.200	.905	.115
	통제집단	15	.210	.073	.825	.008
역기능적 상호작용	실험집단	15	.111	.200	.946	.460
	통제집단	15	.155	.200	.973	.904
까다로운 아동	실험집단	15	.123	.200	.928	.259
	통제집단	15	.136	.200	.968	.832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ESCS;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 검사 수행의 정규성 검정

구분	N	Kolmogorov	Shapiro-Wilk

			-Smirnov			
			통계량	*p*	통계량	*p*
공동주의 시도	실험집단	15	.179	.200*	.914	.158
	통제집단	15	.226	.037	.898	.089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	실험집단	15	.140	.200*	.950	.523
	통제집단	15	.195	.131	.957	.642
행동적요청 시도	실험집단	15	.158	.200*	.951	.541
	통제집단	15	.178	.200*	.932	.290
행동적요청에 대한 반응	실험집단	15	.152	.200*	.945	.447
	통제집단	15	.158	.200*	.952	.554
사회적상호작용 시도	실험집단	15	.234	.027	.908	.126
	통제집단	15	.147	.200*	.945	.448
사회적상호작용에 대한 반응	실험집단	15	.181	.200*	.907	.124
	통제집단	15	.205	.088	.931	.282

* 참인 유의확률의 하한값을 의미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정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결과를 통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 동질성을 검정하였다. 사전 집단 간 동질성 검증 결과, 하위요인 모두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 처지 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 간 동질성 검정 결과는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7> 실험집단(모)과 통제집단(모)의 동질성 검정

구분	실험집단(*N*=15)		통제집단(*N*=15)		*t*	*p*
	M	*SD*	*M*	*SD*		
총 스트레스	127.67	33.53	123	14.88	.493	.626
부모의 고통	43.87	12.66	39.60	6.17	1.173	.251

역기능적 상호작용	43.07	11.95	39.53	6.57	1.003	.325
까다로운 아동	40.73	12.74	43.87	7.58	-.818	.420

<표 8> 실험집단(영유아)과 통제집단(영유아)의 동질성 검정

구분	실험집단(*N*=15)		통제집단(*N*=15)		*t*	*p*
	M	*SD*	*M*	*SD*		
공동주의 시도	14.47	8.23	16.87	7.72	-.828	.417
공동주의반응에 대한 반응	21.73	11.17	23.67	13.69	-.424	.675
행동적요청 시도	26.73	12.91	21.13	13.49	1.161	.255
행동적요청에 대한 반응	28.40	12.31	25.93	15.08	.491	.628
사회적상호작용시도	2.20	1.52	2.60	1.84	-.648	.522
사회적상호작용 반응	5.33	3.26	5.93	3.90	-.457	.651

(공동주의 시도와 행동적 요청 시도,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도와 반응은 빈도를 의미하며 공동주의와 행동적 요청에 대한 반응은 성공적으로 반응한 비율을 의미함)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결과의 기술통계분석

<표 9>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K-PSI) 각 척도별 기술통계량

구분	실험집단(*N*=15)			통제집단(*N*=15)		
	최소값	최대값	*M(SD)*	최소값	최대값	*M(SD)*
총 스트레스	54	178	127.67(33.53)	98	144	123.00(14.88)

부모의 고통	14	58	43.87(12.66)	33	55	39.60(6.17)
역기능적 상호작용	15	60	43.07(11.95)	28	51	39.53(6.57)
까다로운 아동	23	60	40.73(12.74)	29	57	43.87(7.58)

<표 10> 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K-PSI) 연령별 각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1-3세 (n=95)	4-6세 (n=74)	7-12세 (n=132)
총 스트레스	86.51(16.01)	83.11(16.81)	76.72(17.85)
부모의 고통	34.55(7.78)	31.97(7.07)	28.89(7.61)
역기능적 상호작용	22.74(5.01)	23.49(5.51)	22.71(5.77)
까다로운 아동	29.38(6.93)	27.62(7.78)	25.23(7.28)

사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K-PSI) 결과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점 및 하위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총점 및 모든 하위영역에서 1-3세 기준 척도의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자들 개인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양육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1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ESCS;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 점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실험집단(N=15)			통제집단(N=15)		
		최소값	최대값	$M(SD)$	최소값	최대값	$M(SD)$
공동주의	시도	2	30	14.47(8.23)	5	31	16.87(7.72)
	반응	1	41	21.73(11.17)	1	50	23.67(13.69)

행동적 요청	시도	7	50	26.73(12.91)	2	48	21.13(13.49)
	반응	9	50	28.40(12.31)	0	50	25.93(15.08)
사회적 상호작용	시도	0	5	2.20(1.52)	0	6	2.60(1.84)
	반응	1	12	5.33(3.26)	0	15	5.93(3.90)

(공동주의 시도와 행동적 요청 시도,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도와 반응은 빈도를 의미하며 공동주의와 행동적 요청에 대한 반응은 성공적으로 반응한 비율을 의미함)

<표 12> 24~30개월 영아집단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ESCS;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N=40

구분		*M*	*SD*
공동주의	시도	31.70	10.80
	반응	77.08	23.70
행동적 요청	시도	26.63	10.59
	반응	73.10	15.59
사회적 상호작용	시도	5.00	3.90
	반응	10.65	3.13

(김선영, 김희진 (2012). 어머니 자녀 간 애착, 상호 반응적 지향성,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제 35권** 제 4호에서 발췌)

선행연구의 영유아집단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 검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행동적 요청 시도'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현저히 낮은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영유아집단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중 공동주의, 요구행동,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도는 각각 평균 15.67회(*SD*=7.94), 23.93회(*SD*=13.28), 2.40회(*SD*=1.67)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도행동 중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보다는 공동주의와 행동적 요청을 7~10배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의와 행동적 요청에 대한 반응은 각각 평균 22.70%(*SD*=12.32) 27.17%(*SD*=13.58)로 나타났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은 시도행동 보다 2배 이상 나타났다.

2.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연구문제 중 하나는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모 실험집단은 그렇지 않은 모 통제집단과 사전·사후 양육 스트레스 척도(K-PSI) 점수 차이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이다. 따라서 이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 *t*검정을 실시하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표 1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양육 스트레스 점수 차이의 집단 간 차이 검증

변인	집단	사전·사후검사 점수차		*t*	*p*
		M	*SD*		
총 스트레스	실험집단 (*N*=15)	-44.60	23.06	-7.108	.000
	통제집단 (*N*=15)	-1	2.13		
부모의 고통	실험집단 (*N*=15)	-22	13.38	-5.971	.000
	통제집단 (*N*=15)	-.60	1.80		
역기능적 상호작용	실험집단 (*N*=15)	-17.13	8.78	-7.238	.000
	통제집단 (*N*=15)	-.46	1.18		
까다로운 아동	실험집단 (*N*=15)	-5.47	5.47	-4.181	.001
	통제집단 (*N*=15)	.06	1.03		

모의 양육 스트레스의 사전·사후 검사 차이의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한 결과 실험집단에서는 총 스트레스 점수 차이가 평균 -44.60(*SD*=23.06), 통제집단에서는 평균 -1(*SD*=2.13)이었고 *t*값이 -7.108, *p값이* .000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하위영역 모두에서 두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차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소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모의 양육스트레

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발달에 미치는 영향

(1)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 공동주의 시도에 미치는 영향

하위영역 중 공동주의 시도에서 사전·사후검사 차이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실험집단에서의 사전·사후검사 점수 차는 평균 .87(*SD*=6.89), 통제집단의 점수 차는 평균 .13(*SD*=1.68)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366, p>.05).

<표 1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공동주의 시도 점수의 집단 간 차이 검증

변인	집단	사전·사후검사 점수차		t	p
		M	*SD*		
공동주의 시도	실험집단 (*N*=15)	.87	6.89	.366	.720
	통제집단 (*N*=15)	.13	1.68		

(2)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

하위영역 중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에서 사전·사후검사 차이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실험집단에서의 사전·사후검사 점수 차는 평균 .53(*SD*=1.40), 통제집단의 점수 차는 평균 .40(*SD*=1.68)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219, p>.05).

<표 1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 내 사전·사후검사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 점수의 집단 간 차이 검증

변인	집단	사전·사후검사 점수차		t	p
		M	*SD*		
공동	실험집단	.53	1.40	.219	.830

주의에 대한 반응	(*N*=15) 통제집단 (*N*=15)	.40	1.68

(3)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 행동적 요청 시도에 미치는 영향

하위영역 중 행동적 요청 시도에서 사전·사후검사 차이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실험집단에서의 사전·사후검사 점수 차는 평균 4.20(*SD*=2.88), 통제집단의 점수 차는 평균 .27(*SD*=1.38)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4.493, p<.01).

<표 1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 내 사전·사후검사 행동적 요청 시도의 집단 간 차이 검증

변인	집단	사전·사후검사 점수차		t	p
		M	*SD*		
행동적 요청 시도	실험집단 (*N*=15)	4.20	2.88	4.493	.001
	통제집단 (*N*=15)	.27	1.38		

(4)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 행동적 요청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

하위영역 중 행동적 요청에 대한 반응에서 사전·사후검사 차이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실험집단에서의 사전·사후검사 점수 차는 평균 3.60(*SD*=2.79), 통제집단의 점수 차는 평균 .60(*SD*=1.24)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550, p<.01).

<표 1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 내 사전·사후검사 행동적 요청에 대한 반응 점수의 집단 간 차이 검증

변인	집단	사전·사후검사 점수차		t	p
		M	*SD*		
행동적 요	실험집단	3.60	2.79	3.550	.003

청에 대한 반응	(*N*=15) 통제집단 (*N*=15)	.60	1.24

(5)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 사회적 상호작용 시도에 미치는 영향

하위영역 중 사회적 상호작용 시도에서 사전·사후검사 차이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실험집단에서의 사전·사후검사 점수 차는 평균 .20(*SD*=.94), 통제집단의 점수 차는 평균 .20(*SD*=.56)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000, *p*>05).

<표 1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 내 사전·사후검사 사회적 상호작용 시도 점수의 집단 간 차이 검증

변인	집단	사전·사후검사 점수차		*t*	*p*
		M	*SD*		
사회적 상호작용 시도	실험집단 (*N*=15)	.20	.94	.000	1.000
	통제집단 (*N*=15)	.20	.56		

(6)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

하위영역 중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에서 사전·사후검사 차이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실험집단에서의 사전·사후검사 점수 차는 평균 3.07(*SD*=3.65), 통제집단의 점수 차는 평균 .00(*SD*=1.06)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633, *p*<05).

<표 19>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 내 사전·사후검사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 점수의 집단 간 차이 검증

변인	집단	사전·사후검사 점수차		*t*	*p*
		M	*SD*		
사회적 상	실험집단	3.07	3.65	2.633	.020

호 작 용 에 대한 반응	(*N*=15) 통제집단 (*N*=15)	.00	1.06

따라서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하위영역 중 행동적 요청 시도, 행동적 요청에 대한 반응, 사회적 상호작용)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Ⅴ.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았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여 지역 상담소를 내방한 20~30개월 영유아를 둔 어머니 30명 중 무선표집하여 배정하였으며, 실험집단 어머니 15명에게는 2017년 8월~9월간 주 1~2회, 회당 60분씩 총 10회기의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전검사로써 이경숙 외(2008)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척도 '한국판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축약형(K-PSI)'을 사용하여 30명의 실험집단·통제집단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영유아 집단의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은 Mundy, Degaro, Block, Venezia, Horgan과 Seibert(2003)가 개발한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ESCS;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종료 후 동일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와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정을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정을 위해 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검증을 실시하였다.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K-PSI)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점수의 집단 간 차이는 거의 없는 동질한 집단임을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사전·사후검사 차이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실험집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소 정도와 실험집단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하위영역 중 행동적 요청 시도, 행동적 요청에 대한 반응, 사회적 상호작용)의 점수 증가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므로, 본 프로그램은 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영유아의 초기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교류분석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부모와의 의사소통 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및 부모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김윤희, 2006; 손수향, 2005; 정은정, 2002) 외에도, MBTI와 PET의 내용을 재구성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며(김종훈, 2006),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P)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김미례 등, 2008) 등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가 자신과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여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ESCS;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 검사 결과, 사전 검사에서 동질한 집단임이 검증되었으나 사전·사후 검사차이의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였을 때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하위영역 중 행동적 요청 시도, 행동적 요청에 대한 반응, 사회적 상호작용) 점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위의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은 모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와 영유아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애착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또한 높아졌다는 선행연구에서는 애착이 높은 영아는 공동주의의 시도와 반응, 요구행동의 시도와 반응,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반응 또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영, 김희진, 2014).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 및 양육태도의 변화를 꾀할 수 있으며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보았을 때 이 과정에서 자녀와의 애착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위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부모역할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이 느리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으며(이유미, 이정은, 2014) 부모의 반응성은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며(Brady, Marquis, Fleming, & McLean 2004; Girolametto & Weitzman, 2002; Kim & Mahoney, 2004) 양육자가 상호작용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이끄는 대로 따라주면 아동에게 의사소통을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 빈도 및 반응하기, 의사소통 차례수에서의 증가의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진연선, 성인경, 이현숙, 배소영, 2014).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심리적 생활자세의 변화(김해연, 2002), 양육태도 및 승자적 삶의 태도 변화(하경희, 2003), 자녀의 양육태도(윤옥진, 2007), 부모의 자기효능감(이영호, 박성애, 2008)의 변화 등에 관한 연구나 그 대상이 특정한 집단(장애아 부모, 군인가족 등)이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아 부모의 역할이 가

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영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소수에 불과하다.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교류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본 선행연구(김성자, 2007; 배영미, 2009; 진순옥, 2009)에서도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및 태도, 유아의 자아개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와 영유아 자녀의 초기 사회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본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수행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목적에 맞는 대상자의 선정이 어려워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대상자 연령이 8~30개월로 한정되어 있고, 대상자를 모집·선정하기 위한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장소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지 못하였다.

둘째, 연구기간이 짧다는 제한점이다. 연구대상에는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고 그들은 발달선상에 있으므로 연구기간이 길었다면 통제집단 영유아에게서도 사후 검사 결과 점수의 증가가 나타났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사전·사후 검사 간의 시간차를 많이 둘 수 있었다면 프로그램 처치를 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점수 향상 정도와 실험집단의 그것을 비교하여 프로그램 처치 효과와 발달을 통한 점수 차이를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약 두 달 간의 연구기간 동안 통제집단의 아동에게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점수의 향상이 있었다. 이것은 어린 연령의 아동이기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이며 실험집단에서의 점수 증가의 전부가 프로그램의 진정한 효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셋째,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ESCS;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이 척도의 개발 시 이미 입증되었으나, 아직까지 이 척도의 전체점수를 이용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한국판으로 표준화된 것이 아니기에 검사 결과 점수의 비교는 가능하나 점수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

넷째, 사전·사후 양육 스트레스 검사가 약 45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져, 양육 스트레스 점수의 감소가 부모교육프로그램을 막 종료한 후 일시적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그 설계와 과정에서의 제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는 바이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월령별로 연구대상자를 충분히 모집하고 둘째, 대상자의 자연적 발달을 통한 점수의 향상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통한 향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기간을 충분히 길게 설정하며 셋째, 연구대상 외 다른 영유아들에게도 검사를 실시하여 측정도구를 통해 얻어진 점

수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넷째, 프로그램 종료 후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사후 검사를 재실시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의 일시적인 변화와 프로그램 실시를 통한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구분하고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감윤희(2006). 정서행동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부모효능감 향상을 위한 교류분석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금주, 김민화, 한은주(2004).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과 영아기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아동학회지, 25**(5), 111-128.

김경미(2013) 드라마로 풀어보는 교류분석 이야기. 서울: 이담북스.

김미례, 오명자, 오익수, 허승준(2008). 집단상담: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ctive Parenting Today: APT)이 장애아 어머니의 자기격려와 자기낙담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9(4), 1665-1683.

김선영, 김희진(2012). 어머니 자녀 간 애착, 상호 반응적 지향성,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제 35권** 제 4호

김선영, 김희진(2014). 유아의 기질, 어머니-자녀 간 애착, 비언어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 애착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4**(5), 31-54.

김성자(2007). 교류분석 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이 부모의 자아존중감, 자녀 양육태도와 가족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종훈(2006).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연수, 곽금주(2010). 영아기 어머니의 언어적 반응성 및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과 아동 초기 언어능력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김나영, 이경열, 정욱호, 홍계옥(2005). 영유아 발달. 경기 파주: 양서원

김영태(2002).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김정미(2005). 부모-아동 반응성 상호작용과 아동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1), 80-81.

김정미, 정은주(2015). 어머니의 반응성 상호작용이 아동의 중심축 행동과 지능 및 다중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1), 81-99.

김현미, 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김해연(2003). 상호 교류분석 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이 유치원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변화에 미친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효동(2003). 부모교육이 장애학생 부모의 자아개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용아, 김진호(2013). 자폐성 장애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 중재 특성에 관한 국내 실험연구 고찰. **특수아동교육연구 15권 3호**, 337-361.

박성연, 서소정, M. Bornstein(2005). 어머니-영아간의 상호작용방식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5), 15-30.

박성연, 전춘애,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

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박영신, 박난희, 김효정(2009). 영아의 함께 주의하기와 언어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85-103.
박영신, 박난희, 김효정, 여수현(2008). ESCS로 평가한 함께 주의하기의 발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박영신(2011). 함께 주의하기의 개인차와 기질의 관련.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1), 10-124.
박응임(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6(3), 117-129.
서민정, 장은진, 정철호, 최상용(2003).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69-81.
성영미(2003). 자유놀이 상황에 나타난 어머니의 대화 양식과 유아의 의사소통 의도. **아동학회지**, 25(5), 77-89
손수향, 배근택, 이영호(2007). 교류분석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가족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 4, 1-17.
송주미(1992).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자녀행동 지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숙재, 정문자(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옥진(2007). 상호교류분석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자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병래(1996). 자아상태 검사척도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 141-163.
이영, 조연순(1995). 아동의 세계. 서울: 양서원.
이영숙(2001). 유아부모의 학력에 따른 책임의식, 양육태도, 스트레스의 상호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호(2010). 화 조절 TA(교류분석) 부모교육 Workbook. 김해: 인제대학교 출판부.
이영호, 박성애(2008). 상담일반: TA 집단프로그램이 알코올 의존자의 변화동기와 변화전략, 금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9(4), 1585-1605.
이유미, 이정은(2014). 어머니의 기질, 양육스트레스, 배우자의 지지가 3개월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86, 259-281.
이재연, 김경희(1993). 부모교육. 경기 파주: 양서원.
이혜련, 이귀옥, 이영주(2007). 영아의 공동주의와 초기 언어발달의 관계. **아동학회지**, 28(5), 297-307.
장문규, 이완정(2013). 교류분석이론에 기초한 부모코칭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79, 111-132.
정옥분, 정순화(2007). 예비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정윤경, 곽금주(2005). 영아기 공동주의 발달에 대한 단기 종단 연구 : 어머니와 자유놀이에서 주의상태와 가리키기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8**(1), 137-154.

조병금(2008). TA 이론에 기초한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진연선, 성인경, 이현숙, 배소영(2014).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3 세 이하 미숙아와 양육자의 사회적 의사소통 증진에 미치는 효과. **유아특수교육연구**, **14**, 121-142.

최영일, 노정자, 박영혜 등(2015). 교류분석을 활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하경희(2003). 상호교류분석 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이 유치원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승자적 삶의 태도 변화에 미친 효과.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tes, E., Benigni, L., Bretherton, I., Camaioni, L., & Volterra, V. (1977). From gesture to the first word: On cognitive and social prerequisites. *Interaction, conversation, and the development of language*, *5*, 247.

Bates, E., Camaioni, L., & Volterra, V.(1975). The acquisition of performatives prior to speech. *Merrill-Palmer Quarterly of Behavior and Development*, *21*(3), 205-226

Bates, E.(1974). Language and context: Studies in the acquisition of pragmatics. London: Academic Press.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 Haynes, O. M.(1999). First words in the second year: Continuity, stability, and models of concurrent and predictive correspondence in vocabulary and verbal responsiveness across age and contex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2*(1), 65-85.

Bruner, Jerome(1983). Child's talk. Don Mills: Oxford University Press.

Bruner, J., Roy, C., & Ratner, N.(1982). The beginnings of request. *Children's Language*, *3*, 91-138.

Chris Moore, Phil Dunham(2014). Joint Attention: Its Origins and Role in Development. Hove: Psychology Press Ltd.

Claussen, A. H., Mundy, P. C., Willoughby, J. C., & Scott, K.(2002). Joint attention and disorganized attachment status in infants at risk.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4*, 279-292.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Csibra, G., Gergely, G., Bíró, S., Koos, O., & Brockbank, M.(1999). Goal attribution without agency cues: the perception of 'pure reason' in infancy. *Cognition*, *72*(3), 237-267.

Girolametto, L., Hoaken, L., Weitzmen, E., & van Lieshout, R.(2000). Patterns of adult-child interaction in integrated day care group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1*, 155-168.

Hamilton I. McCubbin & Joan M.(1983). Patterson The Family Stress Process. *Marriage & Family Review Vol. 6* , Iss. 1-2, 7-37

Hart, B., & Risley, T. R.(1992). American parenting of language-learning children: Persisting differences in family-child interactions observed in natural home environ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8*(6), 1096.

Hart, B., & Risley, T. R.(1999). The Social World of Children: Learning To Talk. Paul H. Baltimore: Brookes Publishing Co.

Halliday, M. A. K.(1977). Learning how to mean: explorations in the development of language. London: Edward Arnold Ltd.

Kochanska, G.(1997). Mutually responsive orientation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Implications for early socialization. *Child Development*, *68*(1), 94-112.

Kochanska, G.(2002). Mutually responsive orientation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A context for the Early development of conscie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 191-195.

Linda Watson, Bruce Schaffer, Catherine Lord, Eric Schopler(1989). 자폐아와 발달장애아동의 자발적 의사소통지도. 이금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MacDonald(2008). 반응성 교수 교육과정. 김정미 서울: 학지사.

Morales, M., Mundy, P., Delgado, C. E., Yale, M., Neal, R., & Schwartz, H. K. (2000). Gaze following, temperament, and language development in 6-month-old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3*(2), 231-236.

Mundy, P., Block, J., Delgado, C., Pomares, Y., Hecke, A. V. V., & Parlade, M. V.(2007). Individual differences and development of joint attention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78*(3), 938-954.

Mundy, P., Delgado, C., Block, J., Venezia, M., Hogan, A., & Seibert, J.(2003). A manual for the abridged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s(ESCS). Florida: Coral Gables Gazette.

Mundy, P., Sigman, M., & Kasari, C.(1990). A longitudinal study of joint attention and language development in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0*(1), 115-128.

Murray, L., & Trevarthen, C.(1986). The infant's role in mother-infant communications. *Journal of Child Language*, *13*(1), 15-29.

Parpal, M., & Maccoby, E. E.(1985). Maternal responsiveness and subsequent

child compliance. *Child Development*, *56*, 1326-1334.

Ruble, L., Mc Duffie, A., King, A. S., & Lorenz, D.(2008). Caregiver responsiveness and social interaction behaviors of young children with autism.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8*(3), 158-170.

S. Jay Kuder(2010). 언어장애와 의사소통장애. 김화수. 서울: 시그마프레스.

Snyder, J.(1991). Discipline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maternal stress and mood on child conduct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3), 263-276.

Stewart, I., & Joines, V.(1987). TA today: A new introduction to transactional analysis. Nottingham: Lifespace Publishing.

Suchman, N. E., & Luthar, S. S.(2001).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in methadone-maintained mothers' parent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4), 285-315.

Seibert, J., Hogan, A., & Mundy, P.(1982). Assessing interactional competencies: The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3*, 244-258.

Warren, S. F.(2000). The future of early communication and language intervention.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0*(1), 33-3.

부록 1. 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K-PSI)

양육스트레스검사

아동명	아동의 생년월일	년	월	일	검사일	년	월	일
작성자	작성자의 생년월일	년	월	일	아동과의 관계	□부 □모 □기타( )		

※ 지시사항 ※

다음의 문항들에 답할 때, 가장 염려가 되는 한 명의 자녀만 생각해 주십시오. 문항을 읽고 내가 느끼는 정도와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표시해 주십시오. 느낌을 정확히 표현해 주는 답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에 ● 표 해 주십시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예 : 나는 영화 보러 가는 것을 즐긴다.
(만약 당신이 영화 보러 가는 것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다면 2번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 ③ ④ ⑤

번호	문 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끔 어떤 일들을 잘 다룰 수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예상했던 것 보다 아이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나는 새롭고 특별한 일을 할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최근에 내가 구입한 옷 때문에 기분이 찜찜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생활에는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꽤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혼자이고 친구도 없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모임에 갈 때, 나는 즐거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예전만큼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예전만큼 일을 즐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아이는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대체로 우리 아이는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가까이 오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아이는 내가 바라는 것 만큼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런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아이는 놀 때 보통 소리내어 웃거나 즐겁게 웃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아이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배우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만큼 웃는 것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아이는 내 기대만큼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아이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한 매우 어려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느끼기에 나는 ①부모가 되기에는 확실히 부족하다. ②부모가 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 ③보통 부모이다. ④보통 부모보다 조금 낫다. ⑤매우 좋은 부모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아이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24	가끔씩 아이는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자주 보채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6	우리 아이는 대체로 잠에서 깨어나면 기분이 좋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7	우리 아이는 매우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쉽게 화를 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8	우리 아이는 가끔 나를 무척 속상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우리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일이 생기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우리 아이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쉽게 폭발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31	우리 아이의 수면습관과 식사습관을 길들이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우리아이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것이 ①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느낀다. ② 생각보다 다소 어렵다고 느낀다. ③ 생각한 만큼 어렵다고 느낀다. ④ 생각보다 다소 쉽다고 느낀다. ⑤ 생각보다 훨씬 쉽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3	아이가 당신을 괴롭히는 일들 (예를 들면, 게으르다,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과잉활동적이다, 운다, 방해한다, 싸운다 등)이 몇가지가 있는지 잘 세어보십시오. 그 수를 골라 표시하십시오. ① 1~3개 ② 4~5개 ③ 6~7개 ④ 8~9개 ⑤ 10개 이상	①	②	③	④	⑤
34	우리 아이는 나를 몹시 괴롭히는 일들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우리 아이는 생각과는 달리 한 가지 이상의	①	②	③	④	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우리 아이는 보통의 다른 아이들보다 내게 더 많은 요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2.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구성과 세안 및 활동지

- 프로그램의 구성

영역	회기	주제	활동내용
초기	1	오리엔테이션 및 친밀감 형성	‣ 진행자 소개와 전체 프로그램 안내 ‣ 별칭 짓기 ‣ 서약서 정하기 ‣ 별칭으로 자기 소개하기
	2	자기이해	‣ CKEO 그램 검사 실시 ‣ 자아구조 부석과 자아기능 분석을 통하여 자아상태를 분석 ‣ 하기 ‣ 자아상태 촉진행동 작성해보기 ‣ 소감 및 느낌 나누기
	3	자기이해	‣ 직관 CK-EGO그램 작성하기 ‣ CKEO그램 분석하여 자신의 상태를 발표하기
중기	4	자녀이해	‣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문제점 탐색하기 ‣ 교류패턴 설명하기 ‣ 과녁 맞히기를 활용한 효과적인 대화하기 ‣ 소감 및 느낌 나누기
	5	자녀와의 관계이해	‣ 수용의 의미와 인정자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 자녀에게 어떤 인정자극을 사용하는지 경험 나누기 ‣ 인정자극 경제법칙 타파하기 ‣ 소감 및 느낌 나누기

	6	자녀와의 관계이해	‣ 자녀와의 관계에서 심리게임의 이해(교환권, 드라마 삼각형) ‣ 소감 및 느낌 나누기
	7	자녀와의 관계이해	‣ 축소각본을 통하여 감정 알아보기 ‣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힘든 이유를 탐색하기 ‣ 자녀에게 감정 표현하기 ‣ 소감 및 느낌 나누기
	8	사회적 시간 구조화	‣ 친밀을 촉진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익히기 ; 적극적 경청과 공감 ‣ 사회적시간구조화 차트 그리기 ‣ 재결단 내리기
말기	9	부모로서의 재결단	‣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누기 ‣ 재결단 다짐 나누기
	10	마무리	‣ 마무리 및 소감문 작성하기 ‣ 사후검사

● 프로그램 세안

1) 제 1회기: 반가워요!

목표	‣ 지도자와 참가자의 신뢰감을 형성한다. ‣ 참가자 간 친밀감을 형성한다. ‣ 프로그램의 목표와 과정의 흐름을 안다.		
단계	내용	준비물	시간
도입	‣ 진행자 소개 ‣ 프로그램 진행과정 소개	-PPT 자료	10분
전개	‣ 나의 소개 - 별칭 짓기 - 자신의 성격은? - 좋아하는 것? - 잘하는 것? - 되고 싶은 것? - 가족관계 등 ‣ 현재 부모역할 상태의 점수는 몇 점 정도일까? - 부모역할을 가장 잘하고 있는 상태를 1점으로 할 때 현재 자신의 점수는? - 몇 점 정도로 변하고 싶은가? 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활동자료 1-2	40분

	‣ 전 회기 프로그램 안내 -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흐름 설명	프로그램 구성 안내지	
	‣ 서약서	-PPT 자료 - 활동자료 1-1	
종결	‣ 제 1회기 정리 및 소감 발표 ‣ 제 2회기 활동 안내 - 자아 구조와 기능 분석	- 활동자료 1-3	10분

(1) 준비(10분)

▶ 진행자를 소개한다.

▶ 이 프로그램의 목적 및 진행과정을 설명한다.

(2) 활동(40분)

▶ 강의와 집단토의식

<강의내용>

◎ 나의 소개

▶ 나의 소개(<활동자료 1-2>) 내용을 작성한다.

- 자신의 별칭은 좋아하는 식물이나 동물로 표현한다.
- 자신의 성격은?
- 좋아하는 것(음식, 날씨 등)?
- 잘하는 것?
- 되고 싶은 것?
- 가족관계

▶ 둘이서 짝을 지어 서로 나누기를 하고 난 후, 발표 시 상대방을 소개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도록 한다.

◎ 서약서 서명하기

▸ 서약서를 설명하고 집단원끼리 확인한 후 서명한다.

◎ 교류분석 개념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 10회기 동안의 교류분석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한다.

◎ 자녀와의 관계에서 개선하고 싶은 점 나누기

▸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관적이지 못한 감정조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준비물>

▸ 교류분석 강의 PPT자료

▸ <활동자료 1-1> <활동자료 1-2>

(3) 마무리(10분)

▸ 1회기 정리 및 소감을 발표한다(<활동자료 1~3>)

▸ 2회기 활동을 안내한다.

- 자아 구조와 기능 분석

4) 제 4회기: 자녀이해(자녀와 마음 통하기)

목표	‣ 세 가지 교류패턴을 이해할 수 있다. ‣ 자신과 타인의 의사소통 교류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 교류패턴을 통한 자녀와의 대화방법을 분석할 수 있다.		
단계	내용	준비물	시간
도입	‣ 반갑게 인사 나누기 ‣ 친밀감 놀이: 똑같이 그려요 -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름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교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보세요. - 3회기 과제 나누기	<활동자료 4-1>	10분
전개	‣ 교류패턴(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면교류) 설명하기 - 각 교류의 느낌 나누기 - 자녀의 행동에 대한 나의 기분은? 자녀의 기분은 어떨까? - 왜 마음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게 될까? - 나는 어떤 형태로 자녀와 교류를 하고 있는가?	-PPT 자료 -교재	40분
	‣ 교류패턴 연습하기 - 각자 자신과 가족의 교류패턴 이야기하기 - 과녁 맞히기를 활용한 대화법 연습하기		

종결	‣ 제 4회기 정리 및 소감 발표 ‣ 제 5회기 활동 안내 ‣ 과제 안내 - 일상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 적어오기		10분

(1) 준비(10분)

▶ 친밀감 형성 - '똑같이 그려요.'

- 도형이 그려진 그림을 나누어 주고 둘씩 짝을 지어 등을 대고 상대방이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설명한 내용의 그림을 그려 본다.

- 다 그린 후 그림을 비교해 본다.

- 다른 점을 찾아보고 왜 다르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름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교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 제 3회기 교육을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한다.

▶ 과제 나누기를 한다.

▶ 제 4회기 교육내용 및 진행방식에 대해 소개한다.

(2) 활동(40분)

▶ 강의, 집단토의, 게임

<강의내용>

◎ 교류패턴: 일상생활 속에서 주고 받은 말, 태도,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 상보교류: 보내진 메시지에 예상대로 반응이 돌아오는 것. 바람직한 교류다.

- 교차교류: 예상외의 수신자 반응으로, 대화 단절, 싸움이 되는 교류 뒤틀린 관계가 원인이 되는 교류패턴이다.

- 이면교류: 숨겨진 의도를 지닌 메시지, 2개 이상의 자아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 과녁 맞히기를 통한 대화법 연습하기

- 상대방의 감정 읽기
- 공감하기
- 문제해결 정보

◎ 대화관계를 개선하려면

- 대화는 상보교류에서 시작해서 상보교류로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말하는 것을 잘 경청해야 한다.
- 우선 타인의 말을 긍정한다(OK-OK 감정에서).
- 타인의 말을 반복해본다.
- P(어버이 자아)와 C(어린이 자아)에서 상보교류는 서두르지 않고 음미해 본다.
- 대화는 원칙적으로 교차교류를 하지 않는다.
- 평상시에 교차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성해 본다.
- 생산성 없는 상보교류가 계속될 때 교차교류를 해야 한다.
- 타인의 입장이나 최종 결과를 생각해서 필요할 때는 교차교류를 해야 한다.
- 타인과의 대화를 원만하게 계속하려면 숨겨진 의도를 알아야 할 때도 있다.
-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하려면 이면교류는 단절되어야 한다.
- 이면교류는 부정교류가 많아져서 타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경우가 많다.

◎ 대화양식의 형태를 본인의 사례를 통해 나누며 무슨 교류인지 알아본다.
◎ 각 교류의 느낌에 대해 나눈다.
◎ 자녀가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할 때 내 기분은? 자녀의 기분은 어떨까?
◎ 왜 마음과 다르게 말하게 될까요?
◎ 나는 어떤 형태로 자녀와 교류를 하고 있는가?
◎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보교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준비물>

▸ 교류분석 강의 PPT자료
▸ <활동자료 4-1>

(3) 마무리(10분)

▶ 4회기 정리 및 소감을 발표한다.

▶ 5회기 활동을 안내한다.

- 인정자극 경제법칙 타파하기

▶ 과제를 안내한다.

- 일상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 적어오기

• 활동자료 1-1

서 약 서

본인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나의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겠습니다.
2. 프로그램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3.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4. 프로그램 중 알게 된 집단원의 개인적인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5.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6. 매회 모임에 지각이나 결석 없이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집단원	(서명)	집단원	(서명)
집단원	(서명)	집단원	(서명)
집단원	(서명)	집단원	(서명)
집단원	(서명)	집단원	(서명)
집단원	(서명)	집단원	(서명)
집단원	(서명)	집단원	(서명)
집단원	(서명)	집단원	(서명)
집단원	(서명)	집단원	(서명)
집단원	(서명)	집단원	(서명)

- 활동자료 2-1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실천과제

1. 자신을 이해하자! 현재의 자신을 자각하자!
(나 자신과 배우자의 3대 가계도 그리기)

2. 이러한 가계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3. 내가 채택한 역할이나 관계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4. 가족 자아상태 관찰하기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ing Education Adapting Transactional Analysis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Infants' Early Social Communication Skills

Hong, Min-hyung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arenting education adapting transactional analysis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infants' early social communication skills.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ssigned radio sampling among 30 mothers with infants between 20 and 30 months old who visited the local counseling center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15 moth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given a parent education program that applied an exchange analysis for a total of 10 sessions.

To determine the degree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the study used the Korean version of the Parent Stress Index, Short Form (K-PSI-SF), by Lee Kyung-sook (2008). Early social communication skills in the infant group were determined using the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 (ESCS) developed by Mundy, Degaro, Block, Venezia, Horgan, and Seibert (2003).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1.0 program. The total stress score was reduced by an average of －44.6 (SD=23.061) in the experiment group, which was given a parenting education program; in the control group, the score difference was an average of －1.000 (SD=2.138), and the pre- and post-testing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7.108, p<.001). As with the total score, it was shown that the difference in pre- and post-testing between the two groups in all subfactors of the examination was significant at the level p <. 0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ifference of test scores between the pre- and post-testing of the both groups in the factors of Initiation

Behavioral Request (t=4.493, p<.01), Response to Behavioral Request (t=3.550, p<.01), and Response to Social Interaction (t=2.633, p<.05), but was a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Initiation Joint Attention, Response to Joint Attention, or Initiation Social Interaction.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parenting stress among the experimental mothers group, as well as increased early social communication skills among the experimental infants group, through the Initiation Behavioral Request, Response to Behavioral Request, Response to Social Interaction scores. The parenting education program that led to this reduction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the development of early communication skills in infants included transactional analysis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information on infants' early social communication skills, with the aim of allowing mothers to better understand their own characteristics and those of their children, and to positively accept the emotions they feel when raising their children.

Only a small number of previous studie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arenting education program have been carried out with parents of infants. Those that have been conducted were largely focused on the psychological attitudes of the mothers, and the influence on the infants' self-concept.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arenting education program adapting transactional analysis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infants' early social communication skills. However, there were some limitations in this study.

First, the study sample was not large enough. Second, the period for the study was not long enough; therefore, it wa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an improvement in scores through natural development and an increase in scores through the effects of program. Thir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ESCS has been already proved when it developed, but very few prior studies use the full score on this scale so far, and it has not been standardized in the Korean version; therefore,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score itself. Fourth, the pre- and post-parenting stress tests were carried out at intervals of about 45 days; therefore, the results were likely to be a temporary.

Based on the limitations stated, the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are these: (1) Determine the minimum number of subjects necessary to validate the results, and communicate with various types of facilities in contact with parents of infants to identify and secure participants; (2) Extend the period of study sufficiently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 clearly between improvement of scores through natural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programs; (3) ESCS studies should be extended to other infants, not only subjects for this study, for

abundant data so that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interpret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can be clearly understood; and (4) Post-tests should be carried out at regular intervals after the end of the program to utilize the data to verify the true versus temporary effects of the program and use it as data for demonstr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